## 한국\_Korea 신조어

: 2025 12 1 9:04

타이틀	설명
주학무	주부 학생 무직.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온 신조어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이 해당 계층에서 특히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을 근거로 나온 것이며 윤석열의 지지자들을 지칭하는 용도로 쓰인다. [119] [120]
존맛, 존맛탱, JMT(존나 + 맛있다/+ -탱)	어떤 음식이 매우 맛있음을 말한다.
중중	단기 하락한 주식 종목을 사거나 추가 매수하는 행위. 싸게 주워 담는다는 의미다.
존버	'죽도로 버틴다'는 뜻으로, 장기투자를 의미. 상승과 하락에도 매도를 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한다는 뜻이다.
주린이	주식 + -린이
즐	즐거운 게임
좋댓구알	좋아요 댓 글 구독 알림설정
정 <del>줄</del> 놓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종결자	종결자: 「명사」최고의 수준에 오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킹왕짱'과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종결은 일을 끝내다라는 뜻으로 놈자가 붙어 끝내는 사람의 의미가 된다. 경쟁할때 더이상의 경쟁이 무의미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주작	주작: 「명사」'조작'의 의미로 사용된다. '프로게이머 승부조작'으로 유명해진 마재윤의 아프리카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채팅창에 '조작'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자 마재윤이 이를 금지어로 걸었고 이에 유저들이 조작과 단어가 비슷한 '주작'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주 쓰이게 되었다.
지름신	지름신: 「명사」 '물건을 지르고 싶어하게 만드는 신'을 의미하는 단어로 물건을 사고 싶어질 때 '지름신 강림'과 같은 식으로 쓰인다. 동사형은 지르다이다. '지르고' 싶은 감정 상태는 뽐뿌라고 한다